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15호

I 농촌진흥청 · 코트라, 농업기술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 협력

II '23년산 국산 단감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III '23년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99.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 신선 11.8억불(△5.7%), 가공 62.6(2.6%↑), 수산 24.6(△7.5%) -

- `23년 10월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9,901.2백만불
 - (신선) 김치(130.6, 10.1↑) 증가세, 과실류(288.5, △1.7), 채소류(230.4 △0.6), 닭고기(72.6, △12.7) 감소세, 인삼류(202.6, △0.2) 감소폭 축소
 - (가공) 면류(976.4, 20.7↑), 과자류(546.0 4.9↑), 음료(483.4, 8.9↑) 증가세, 커피조제품(267.2 △3.6), 조제분유(58.1, △33.2) 감소세
 - (수산) 김(671.2 20.4↑), 고등어(80.7, 60.5↑), 굴(77.3, 4.6↑) 증가세, 참치(440.6, △16.4), 명태(46.2, △80.0) 감소세

* 23년 10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10.0% 감소한 5,193.2억불

< `23년 10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2(연누계)		`22년 10월(A)		`23년 10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951.7	11,962.3	4,128.8	10,014.4	4,051.1	9,901.2	△1.9	△1.1
□ 농림축산식품	4,025.7	8,823.7	3,342.1	7,351.0	3,436.5	7,437.1	2.8	1.2
○ 신선	532.1	1,576.6	437.0	1,252.6	408.7	1,181.3	△6.5	△5.7
○ 가공	3,493.6	7,247.1	2,905.1	6,098.4	3,027.8	6,255.8	4.2	2.6
□ 수산물	926.0	3,138.5	786.7	2,663.5	614.6	2,464.1	△21.9	△7.5

* 수출통계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산물 수출 동향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해외시장분석센터, 1644-6419)

- CIS·몽골(390.4, 19.1%↑), 미국(1,424.8, 3.5↑) 증가세, 아세안(1,994.9, △1.8), 일본(1,752.5, △3.8), EU·영국(600.2, △6.4) 감소폭 축소, 중국(1,723.8, △6.0), 감소세
 - (일본) 신선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 김, 굴 등 수산 호조로 감소폭 축소
 - (중국) 전년 상반기 봉쇄 기저효과 약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감소세
 - (미국) 현지 소비자 구매력 회복세로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 (아세안) 닭고기, 음료 수출 감소세이나 라면, 김 등 호조로 감소폭 축소
 - (유럽) 제품 다양화와 판로 확대에 라면·김치 수출 증가하면서 감소폭 축소
 - (CIS) 서방과의 단절로 인한 아시아 교역 확대에 수출 증가세

< `23년 10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ASEAN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2(연누계)	2,590.8	1,822.1	1,376.8	2,031.4	728.1	378.4	273.2	641.3	327.7	194.2
`22.10월(A)	2,450.6	1,752.5	1,424.8	1,994.9	695.4	384.8	255.8	600.2	390.4	225.5
`23.10월(B)	△5.4	△3.8	3.5	△1.8	△4.5	1.7	△6.3	△6.4	19.1	16.2
증감률(B/A)	24.8	17.7	14.4	20.1	7.0	3.9	2.6	6.1	3.9	2.3

농진청 이슈



농촌진흥청 · 코트라, 농업기술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KOTRA))와 17일, 코트라 본사(서울 양재)에서 농업기술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의 기술력과 코트라(KOTRA)의 정보력, 광범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해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0개 지역본부와 129개 해외무역관(84개국)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다. 국제 무역,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무역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 전후방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교류 △수출 기업 대상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 연계 지원 △해외 수입상(바이어)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 제품전시회, 발표회 개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업 분야 기술수출 모형 개발을 강화하고, 수출이 유망한 수직농장, 농·기자재 등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수출 확대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두 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협업 모형을 제시하고 미래 유망 성장 산업인 농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을 활용한 수출 모형을 현장에 확산하고, 수출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낙농 기술 첫 수출 기념 학술 토론회 성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몇 달간 수정란 준비, 검역 협상, 통관, 대리모 가축 준비 등 치밀한 준비 단계를 거쳐 지난달 20일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낙농 묶음’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념해 수정란 제작업체(제네틱스)와 함께 지난달 19~20일 이틀간 현지에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대리모 가축에게 직접 수정란을 이식하는 행사와 젖소 사양 관련 한국형 기자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축산 관계관과 대학교수, 학생을 비롯해 인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한국의 선진 축산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한국형 젖소 번식 관련 국내 기자재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이번 수출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특별 검역 협상을 체결하고 국내 수정란 제작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 젖소 수정란을 처음 수출할 수 있게 지원했다. 현재 코피아(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축산 연구소와 ‘젖소 산유량 증대를 위한 번식·사양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정란 수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즈베키스탄 수의축산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한-우즈베키스탄 수정란 정식 허가’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얻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검역본부와 협의해 양국 간 정식 검역 협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와도 협력해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고,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해 새로운 민간 시장 개척을 도울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우수한 낙농 기술과 국내 후방산업(유전자원, 사료, 동물약품 등)을 묶어 수출하는 ‘케이(K)-낙농 기술수출’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23년산 국산 단감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농가 목록 송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3년산 국산 단감의 대베트남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수출 선과장 및 재배농가, 소독처리회사 등 검역본부에 등록된 최종 목록을 베트남 측에 송부하였다.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산 농산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검역본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하여 신속한 수출검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국산 농산물의 대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국산 참외에 대한 검역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3년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 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10.23.~10.26. 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을 위해 대만검역관을 초청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산 참다래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대만측 검역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통해 참다래 수출검역단지(과수원 포함)에서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대만검역관은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 뿐만 아니라 사과, 배도 검역요건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